



보 도 자 료

책임자 변혜원 실장(금융소비자연구실, 3775-9027)
작성자 김동겸 연구위원(3775-9058)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2. 7. 22(금) 조간부터
배포 2022. 7. 21(목)
매수 총 3매

보험연구원, 『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』 CEO Report 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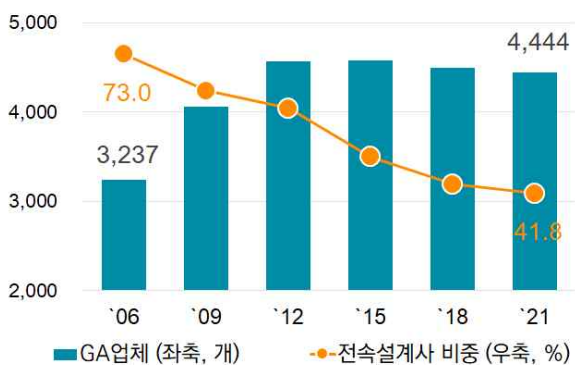
“GA채널,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모집의 질 향상을 통해
소비자 중심 채널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한 시점”

-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·정인영 연구원은 최근 GA시장의 변화 동인 및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『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』 보고서를 발표함
- (GA시장의 변화 동인) GA채널이 핵심 보험모집채널로 자리잡은 가운데, 최근의 보험영업환경 및 시장참여자의 행태 변화가 GA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
 - 보험가입 전 상품비교가 보편화되고, 보험료 절감을 위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함
 - 보험회사는 전속설계사의 조직이탈로 영업통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비용 절감을 위해 전속영업조직을 분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짐
- (GA시장의 변화 특징) 최근 GA시장은 진입기업 다양화, 사업모형 다변화, 기업공개(IPO) 확산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
 - 보험회사는 GA시장에서 상품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자 자회사형 GA 설립을 확대하고 있으며,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보험모집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
 - 일부 GA는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신뢰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인바운드 영업과 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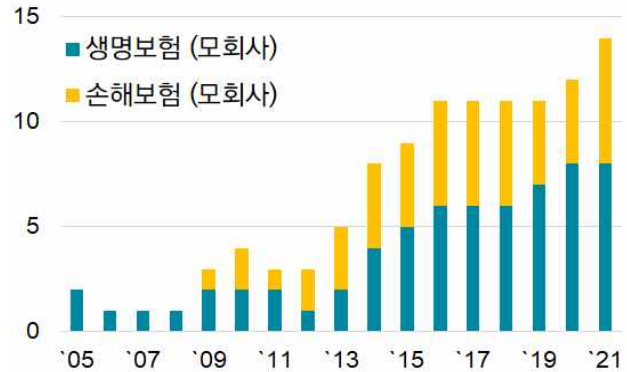
규직 설계사 채용 등 기존의 영업조직관리 방식에서 벗어난 전략을 시도하고 있음

- 한편, 신사업 추진, 브랜드 인지도 제고, 모집수수료 개편에 따른 자금 확보 등을 목적으로 기업공개(IPO)를 추진하는 GA가 늘어나고 있음
- 아울러 GA채널이 보험모집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보험회사가 증가함

〈그림 1〉 GA업체 수와 전속설계사인력 비중 변화
(단위: %)



〈그림 2〉 자회사형 GA 설립 추이
(단위: 개)



주: 전속설계사 비중은 전체보험모집인력 대비 전속인력 비중임
자료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

자료: 각 사 공시자료, e클린보험서비스

○ (GA시장 전망) 향후 GA시장은 보험회사의 판매자회사 설립 확대, 영업조직의 대형화·집중화 심화, 상품 및 고객군에 따른 시장 세분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

- 전속채널을 통한 상품 공급만으로는 GA나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마케팅 경쟁력 우위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보험회사의 판매자회사 설립이 증가할 것임
-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GA간 M&A가 확산될 것이며, 이를 바탕으로 대형 GA를 중심으로 한 IPO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플랫폼 기반 GA는 저연령층 대상의 단순·저가 상품시장에, 대면판매 중심 GA는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자문서비스 시장에서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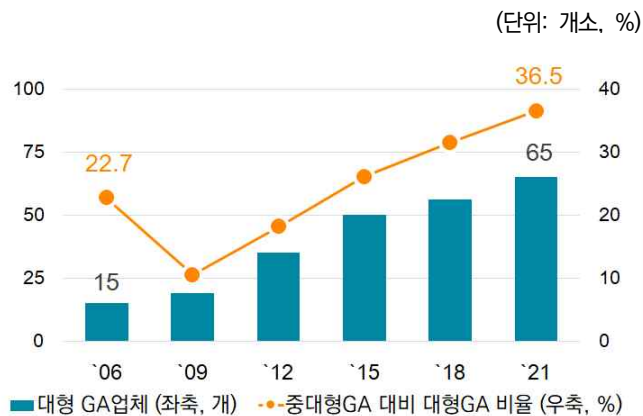
○ (경영 대응) 향후 보험회사는 GA채널과 전속모집조직의 전문성과 영업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비교·분석하여 자사에 적합한 영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
-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 및 고객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채널운영 방식을 선택할

필요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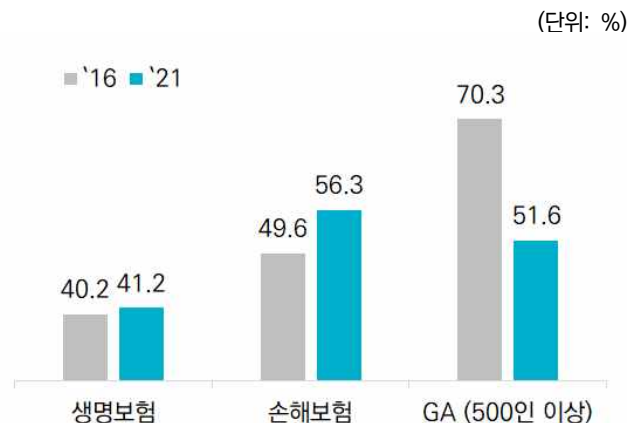
- 전속영업조직을 유지한 채 자회사형 GA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중복된 상품제공으로 인한 채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
- (정책 과제) 감독당국은 최근 GA의 위상과 모집시장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영업생태계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함
- GA설계사의 정착률 하락 원인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, 플랫폼 기업의 보험상품 판매 확대 과정에서 기존사업자와의 공정경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
 - 특히,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·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한 GA채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, 보험상품 비교·추천(권유) 절차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 - 한편, 2023년 새로운 회계제도(IFRS17) 도입 후 각 사의 사업비 배분정책이 모집시장에서의 과열경쟁과 소비자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

〈그림 3〉 GA의 대형화



주: 대형GA는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, 중형GA는 100~499명임
자료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

〈그림 4〉 설계사 정착률 비교



주: 13월차 설계사 등록정착률임
자료: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, e클린보험서비스

첨부: CEO Report 『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